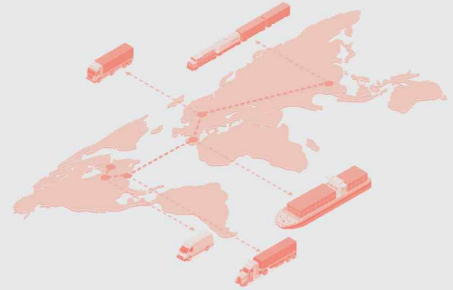




최근 중국 공급망 이슈의 영향 및 전망

최근 중국 공급망 이슈의 영향 및 전망



목 차

제1장 배경	3
1. 코로나 팬데믹	3
2.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4
3. 미중 디커플링 심화	6
제2장 중국 공급망 이슈 사례	8
1. 제로코로나와 공급망 혼란	8
2. 주도권 경쟁과 자립형 공급망	14
3.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난 심화	17
제3장 한중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8
1.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	18
2. GVC 재편 추세	23
3.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29
제4장 전망 및 시사점	31

요 약

□ 코로나 팬데믹,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미중 디커플링 심화 등이 최근 공급망 이슈 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음

- 세계가 오미크론 확산을 경험한 두 달 뒤인 올해 4월 중국은 코로나19 첫 발발 이후 최악의 확산세를 보이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심화함
- 2020년 2분기 코로나 회복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며 국제 원자재 가격 급상승해오다 2022년 들어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겹약재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화하고 있음
- 미·중 갈등이 무역 분쟁에서 장기적이며 전면적인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패권 및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공급망 관련 이슈에는 제로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혼란, 주도권 경쟁 및 자립형 공급망 구축,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난 심화 등이 있음

- 올해 오미크론이 확산이 심했던 중국 내 주요 경제발전 지역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제조·물류가 활발했던 다수지역이 동시에 섯다운되는 상황 발생, 수출 및 지역 경제에 큰 타격
-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대응을 위해 RCEP 등 자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립형 경제 구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원자재 급등세, 중국의 경기둔화,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내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공급난을 심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요 약

- 이러한 중국의 공급망 이슈는 결국 대중 수출, GVC 재편 등 한중 공급망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올해 4월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의한 생산 차질 등 공급망 이슈 발생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율은 1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미·중 간 대립이 장기화 전면화 됨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탈중국) 및 다변화가 이어지는 등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이 활발해지는 추세
 - 특히, 올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물류난 등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자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역내가치사슬(RVC)이 더욱 빠르게 형성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등 한중 양국 간 공급망 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 미·중 중심의 경제 블록화 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대중국 의존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국은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두고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고관리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함
 - 미·중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GVC의 빠른 재편이 진행되면서 경제블록화 현상은 가속화될 전망으로 향후 GVC의 탄력성,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한중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China+1 등 유연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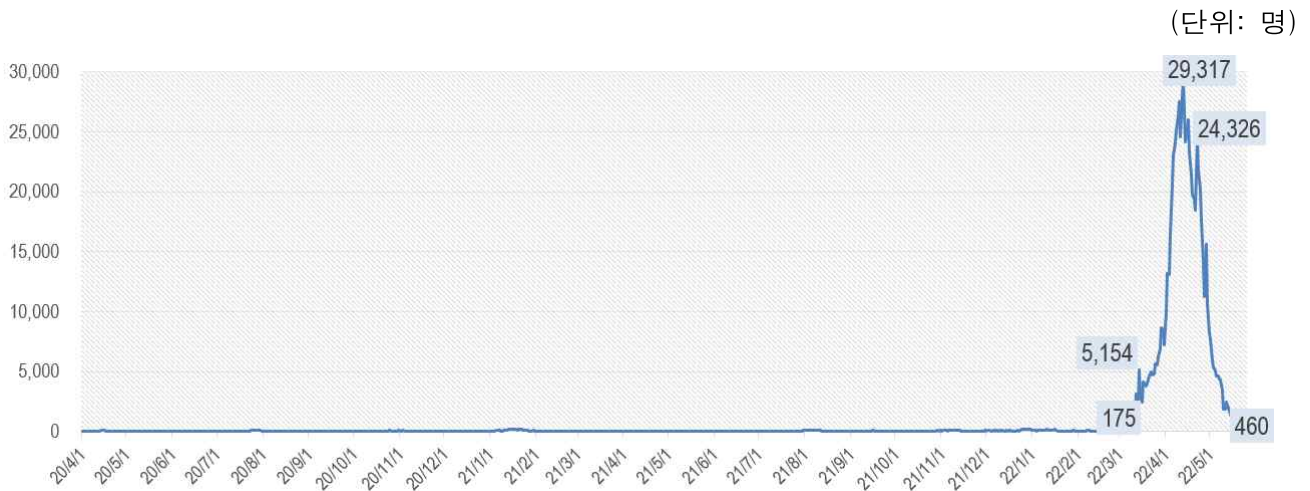
1. 배경

1. 코로나 팬데믹

□ (중국) 코로나19 첫 발발 이후 최악의 확산세

- 코로나19 조기 진압에 성공한 2020년 4월부터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는 약 2년간(2022.2월까지) 100명 이내 수준을 유지해왔음
- 산발적 감염사태로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1~2개 도시 중심의 확산세를 한 달 이내 빠르게 진압
- * 중국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 집계를 시작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말까지 1년 9개월간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10명 미만인 날은 354일, 이중 '0'인 날은 179일인 데 반해 100명을 초과한 날은 37일

<중국 본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무증상 포함) 수 추이>



자료: 國家衛健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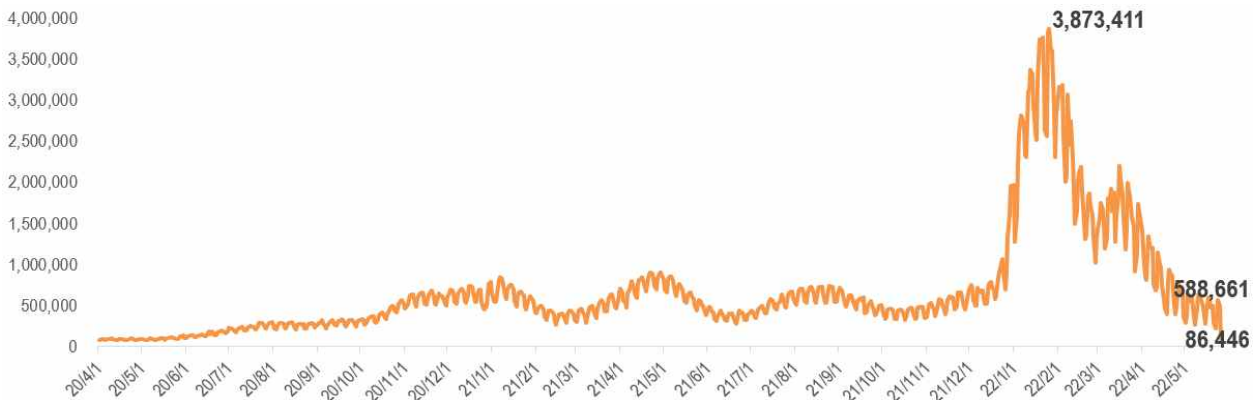
-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2022년 3월부터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무증상 포함) 수는 급증해 4월 중순 최고치 기록
- 3월 10일 하루 감염자 수가 1천 명을 넘긴 이후 4월 2일 1만 명을 돌파했으며 그 후 28일간 1만 명 대를 유지
- 특정 지역이 아닌 중국 전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악의 확산세를 겪음

□ (해외) 중국보다 두 달 앞선 오미크론 확산세 고점

-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으로 세계는 중국보다 두 달 앞서 '최악의 사태'와 마주함
-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말 387만 명에서 고점을 찍은 후 4월 중순부터 100만 명을 하회함
- 시기적으로 중국 내 확산세가 악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공급망 혼란이 심화됨

<전 세계(중국 제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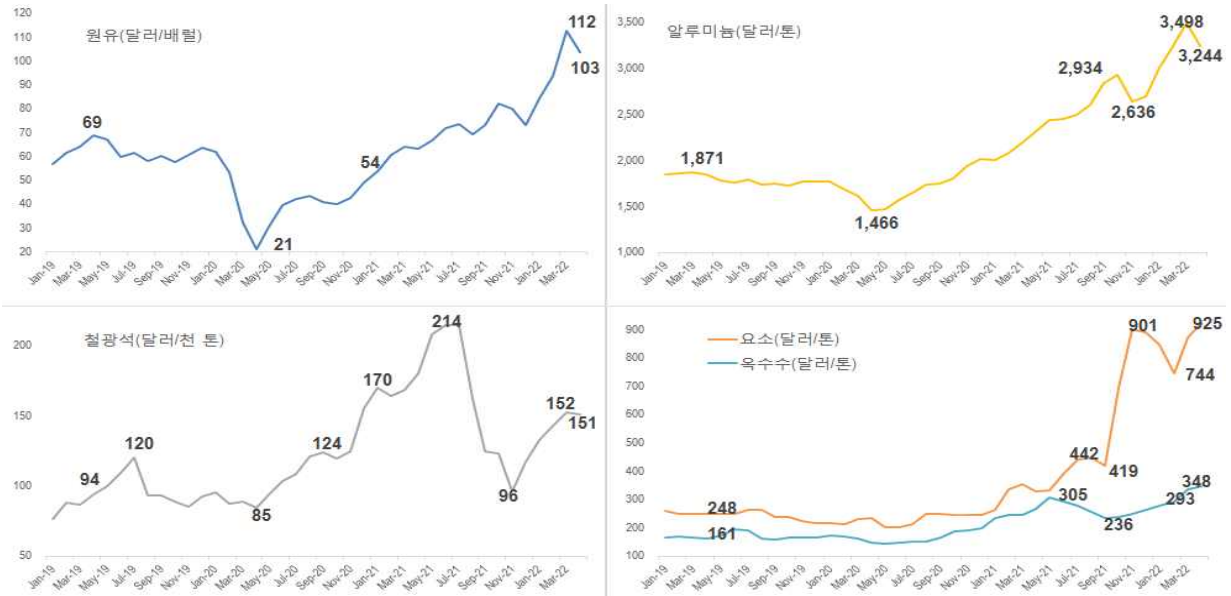
자료: wind

2.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 연이은 악재로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 코로나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2020년 2분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 급격히 상승
- 2022년 들어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겹악재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
- 원유, 공업용 금속, 식량 등 벌크상품 가격은 2021년 4분기 상승세가 꺾였다가 오미크론 확산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2022년 다시 반등
- 석유, 가스, 금속, 곡물의 세계적인 공급원인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공급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 2022.3월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연내 140달러 돌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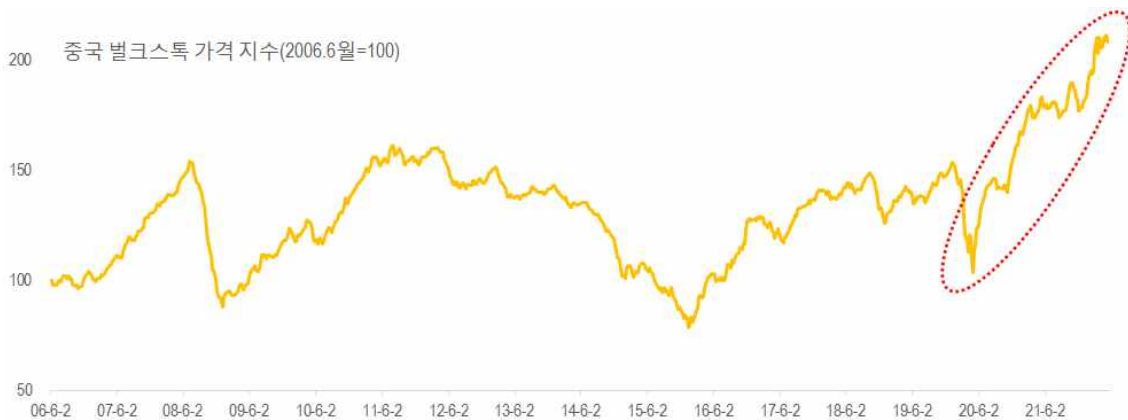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



자료: World Bank

- 중국 벌크스톡(상무부에서 집계, 발표) 가격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 공급망 혼란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의 경우 2021년말 기준 4.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수가 개발된 1997년 이후 최대치

<중국 벌크스톡 가격 지수>



자료: 商務預報

- 원자재 공급원들이 잇따라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하며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증폭
 - * 인도네시아: 2021년 말 발전용 석탄 수출 금지(1.12일부 점진적 재개), 4월 말부터 25일간 팜유 수출 중단,
 - 인도: 철광석 수출세 인상(최대 50%까지), 밀 수출 금지 선언
 - 러시아: 반도체소자 및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 품목 수출금지 및 제한

3. 미중 디커플링 심화

□ 미중 갈등: 무역분쟁에서 장기·전면적 대립으로 발전

-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 탈세계화·디커플링 빠르게 진행
 -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Pivot to China)이 규범화(Rule setting)와 진영화(동맹강화)를 두 축으로 하는 로드맵에 따라 갈등 강도는 상승
 -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등은 한층 강화
 - 코로나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다가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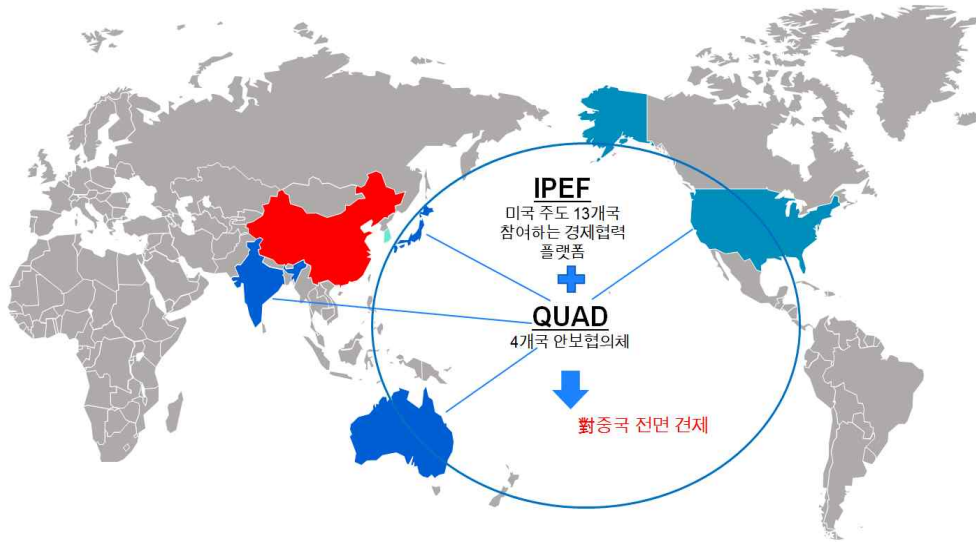
<2018년부터 탈세계화, 디커플링 빠르게 진행>



자료: Google, INDUSTRIAL SECURITIES

- 최근 기술 패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대립 격화
 - 미국은 견고해지는 동맹체제(안보-쿼드, 체제-D10, 공급망-IPEF 등)를 기반으로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음
 - 2022년 5월 미국 주도·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미중 주도권 경쟁 격화
 - 중국은 RCEP, 일대일로, 개도국 협력 등을 내세워 중국 중심의 GVC 재편 본격화

<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 진영화 >



자료: 日 미즈호종합연구소

-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중국은 공급망 안정을 크게 우려
 - 미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박차
 - 특히 중국이 핵심 미래 산업으로 지목한 반도체, 신에너지차,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중국 내 위기감 고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韓·日 기업의 첨단 분야 對美 투자 활발>

시기	한일 기업의 對美 투자 사례
2020.5월	- 미국, 한국, 유럽, 일본, 대만 등 국가/지역의 64개 사 미국반도체연맹 (Semiconductors in America Coalition, SIAC) 공동 설립
2020.5월	- 대만 TSMC,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설립 * 총투자액 120억 달러, 생산능력 2만 장/월, 2021년 착공, 2024년 양산 계획
2021.9월	- SK이노베이션, 미 포드車와 배터리 공장 공동 설립 예정
2021.11월	- 삼성, 미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설립, 총투자액 170억 달러
2021.12월	- 도요타車,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배터리 공장 설립, 총투자액 12.9억 달러
2021.12월	- LG 에너지 솔루션, 미 GM車와 제3합작 공장 설립 발표, 투자액 20억 달러
2022.5월	- 삼성SDI,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 공동 설립 - 현대차 미국에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셀 생산공장 신설 발표, 투자규모 6.3조 원(한화)

자료: EVERBRIGHT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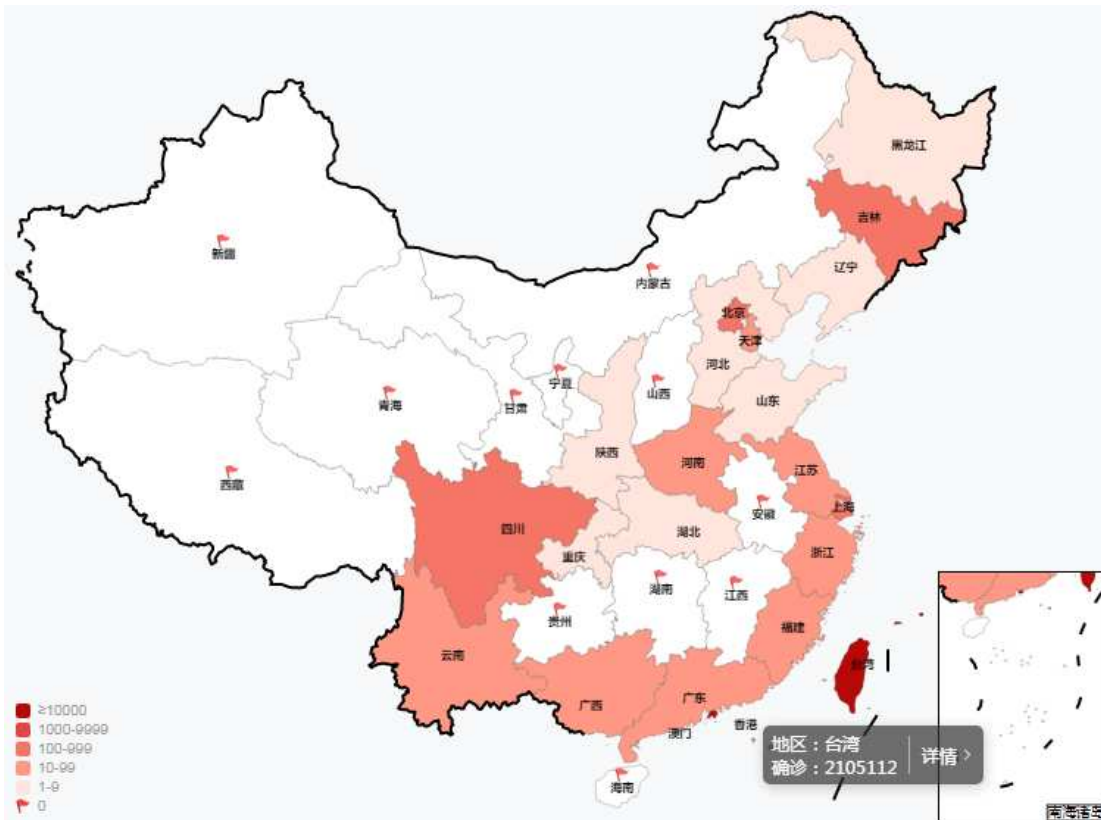
II. 중국 공급망 이슈 사례

1. 중국의 제로코로나와 공급망 혼란

□ 경제활동이 활발한 대도시 중심으로 다수지역 동시 섯다운

- 2022년 봄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선전, 상하이, 창춘, 베이징 등 인구 밀집도 高·경제활동 활발·제조업 허브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경제력·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4대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 전국 GDP 20% 차지하는 핵심 제조업 기지인 창장삼각주, GDP 1위성 광둥, 중국 자동차 산업 생산에서 11% 차지하는 지린성 등 포함
- * 지린성과 상하이 및 인근지역 전국 자동차 산업 생산에서 각각 11%씩 차지, 이번 봉쇄로 중국 20% 이상의 자동차 산업생산 차질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2022.6.2.일 기준) 중국 확진자 수 분포>



주: 확진자(무증상 미포함)

자료: 疫情實時大數據報告, (검색일: 2022.6.2.)

- ‘제로 코로나(動態清零)’ 정책에 따라 방역통제·봉쇄 시행하면서 경제활동 활발한 다수지역 동시 ‘셧다운’
 - 3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쑤저우, 선전, 창춘, 산둥 웨이하이, 베이징 등 도시의 전면·부분 봉쇄가 5월 말까지 지속되면서 대규모 ‘셧다운’ 사태 장기화

※ [참고] 중국 봉쇄·통제구역 분류기준

- 중국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중국의 각 지역을 고위험구역(高风险区)과 중위험구역(中风险区), 저위험구역(低风险区)으로 나누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
- 감염 상황에 따라 봉쇄구역(封控区)과 관리구역(管控区), 예방구역(防范区)으로 나누어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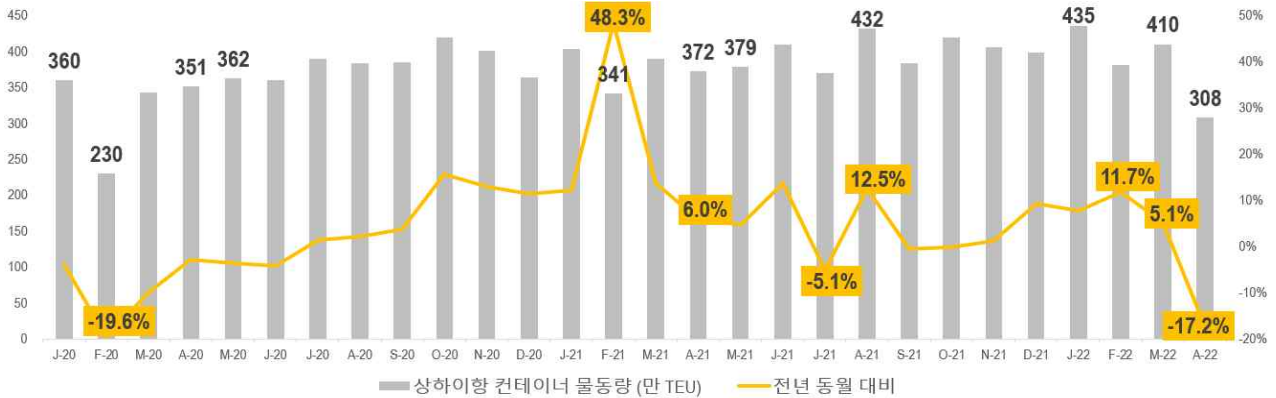
구분		기준	단위
위험 구분	고위험구역 (高风险区)	- 누적 감염자 수가 50명을 넘고 14일 이내에 집단성 감염 발생	현(县), 시(市), 구(区)
	중위험구역 (中风险区)	- 14일 이내에 신규 확진자가 있고, 누적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음 - 또는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으나 14일 이내에 집단성 감염이 발생하지 않음	
	저위험구역 (低风险区)	- 14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없음	
통제 구분	봉쇄구역 (封控区)	- (대상) 확진자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 2일 전부터 거주한 구역 및 주요 활동 구역 - (조치) 구역 봉쇄, 집 밖 외출 금지, 문 앞 배달 - (해제 조건) 해당 구역에서 연속 14일간 신규 확진자가 없고, 마지막 밀접접촉자의 접촉일 14일 후 핵산 검사결과가 음성이며, 봉쇄 해제 2일 전 해당 구역 전원의 핵산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작은 마을, 건물(楼栋), 건물라인 (单元)
	관리구역 (管控区)	- (대상)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기 2일 전, 확진자에 의한 전파 위험이 있으나 구체 지역 또는 밀접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 (조치) 구역 밖 외출 금지, 집회 금지, 제한된 조건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 구매 및 병원왕래 가능 - (해제 조건) 봉쇄구역 해제 조건과 동일	
	예방구역 (防范区)	- (대상) 봉쇄구역과 관리구역 이외의 모든 지역 - (조치) 일상적 방역활동 - (해제 조건) 봉쇄구역과 관리구역에 대한 모든 통제 해제 시	

자료: 국무원, KIEP

□ **셋다운으로 항구 운영·수출에 차질**

○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 상하이항, 코로나 봉쇄로 4월 컨테이너 물동량 17.2%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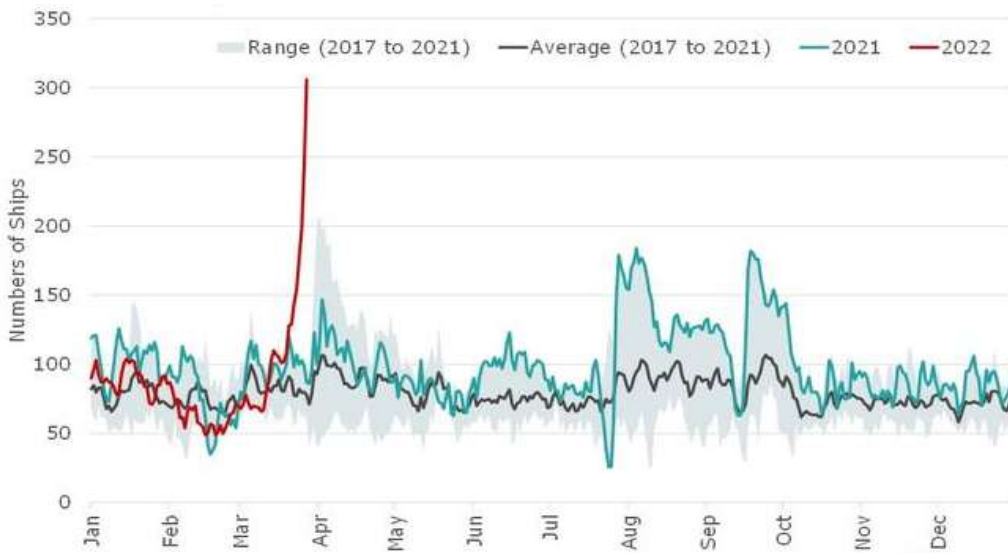
<2022년 4월 상하이항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



자료: 交通運輸部

- 3.28일부터 시작된 상하이 도시봉쇄, 인근지역 도로 봉쇄 등이 항구 하역 대기 선박 급증, 항만 컨테이너 회전율 급락, 배송시간 지연, 항구 정체로 이어졌음
- * 세계 해운데이터 제공업체인 배슬스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상하이 지역에 확진세가 이어지기 시작한 3월 상하이에서 선적 또는 하역을 기다리는 선박의 수는 약 5배 증가한 약 300척, 전년도 동기간의 100척, 2017~2021년 동 기간 평균 약 75척임을 감안하면 선박 정체가 상당히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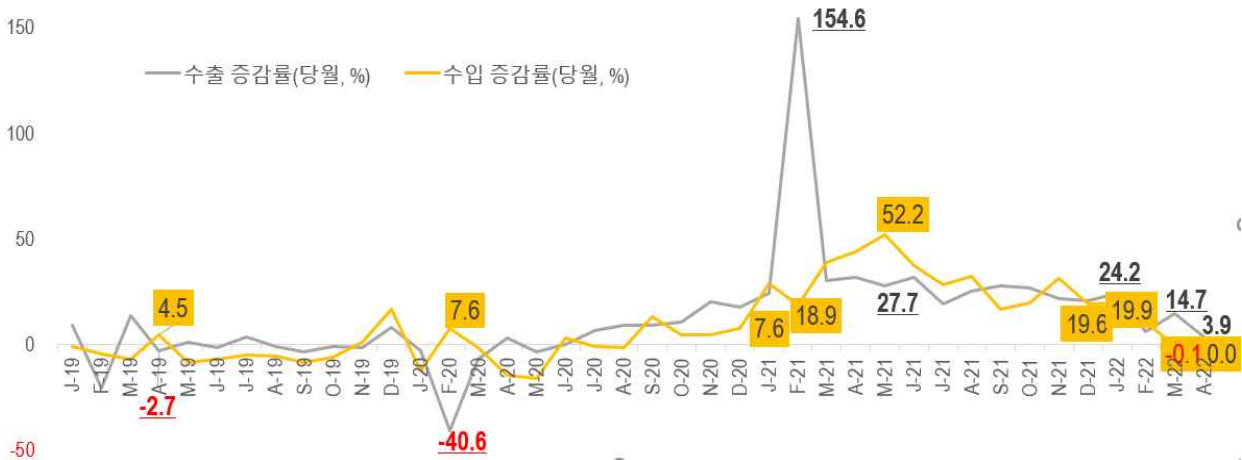
<상하이항 하역 대기 선박 규모>



자료: Vesselsvalue

- 섣다운, 항구 정체 등으로 중국 4월 수출 증가율 크게 둔화
 - 3월(14.7%)보다 10.8%p 줄어든 3.9%에 그쳤으며 2020.6월 이후 최저치 기록
 - 중국 주력 수출 품목인 기계 전자는 물론, 코로나 기간 중국 수출 회복세를 이끌었던 방역용품까지 수출 증가율 큰 폭 감소
 - * 품목별 수출 증가율 둔화폭(4월-3월, %p): 자동차 △46.1, 방직품 △21.4, 집적회로 △14.4, 종약제 및 약품 △57.9, 휴대폰 △21.4, 의료기기 △15.1, 비료 △10.1, 철강 △10.2
 - 수요 위축으로 중국 수입금액도 3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
 - * 수입액은 2225억 달러, 2021.4월 대비 8천만 달러 낮은 수준(증가율 0%)

<2022년 3~4월 중국 수출입 증가세 큰 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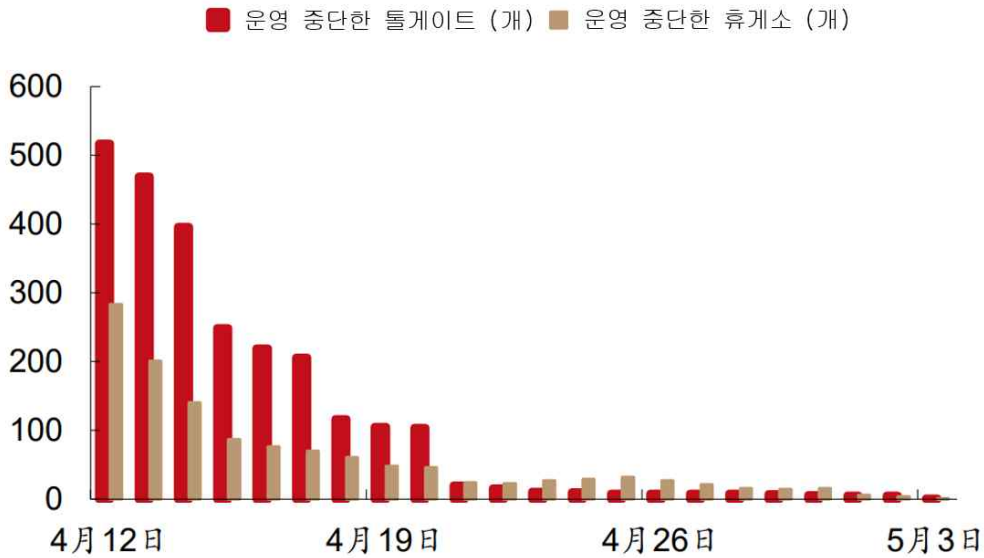


자료: 海關總署

□ 지방정부의 방역 수요에 의한 도로 차단으로 물류난까지

- 각 지방 정부들이 바이러스 유입 예방을 위해 톨게이트·휴게소 운영을 중단 하면서 중국 내 물류난·공급 혼란 심화
 - 상하이 봉쇄 시작된 2주 후인 4월 10일 중국 내 운영 중단한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수 각각 678개, 364개에 달함
 - 지방정부가 각자 마련한 기준에 따라 화물 차량 및 물류업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통행 관리제도를 실시하며 물류 운송에 큰 혼선
 - 물류 차질로 4월 주요 성시 도로 화물 운송량 급감: 상하이 △72.3%, 베이징 △21.4%, GDP규모 1,2위 지역(省)인 광둥, 장쑤 각각 △11.4%, △48.3%, 중국 '전자상거래 허브'인 저장성 △10.4%

<2022년 4월 톨게이트·휴게소 운영 중단 사태>



자료: Wind, Western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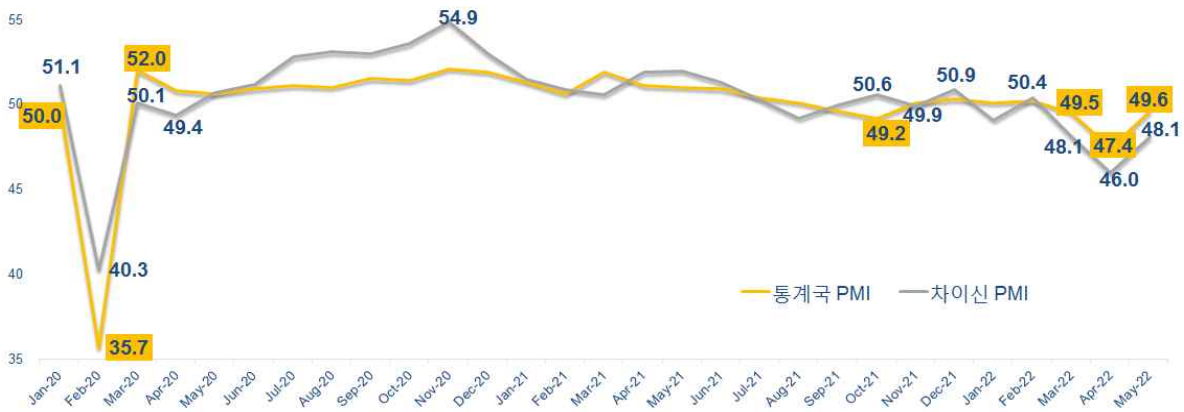
- 물류난이 확산하자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이 규범화·정밀화 관리에 나섰다
- 국무원은 ‘화물 운송물류 원활화 보장 7조’(2022.4.11일 발표)에서 방역 수요에 따른 교통 통제, 화물 차량 및 물류업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규범화하고 의료방역물자·생필품·정부비축물자·핵심 생산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할 것을 지시

※ [참고] ‘화물 운송물류 원활화 보장 7조’의 주요 내용

- (교통 통제) △도로·항로 차단, △고속도로 주유시설·항구·기차역·공항 운영 중단, △주간 고속도로·항로내 방역검사시설 설치 등은 省급 연합방역본부/국무원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방역 통제) 全市 봉쇄조치 등은 시급 연합방역본부 비준을 거친 후 省급 방역통제본부에서 취합, 국무원 미니앱(小程序)에 공고해야 함
- (인원 관리) 물류업 종사자에 대한 핵산 검사를 확대하고 이동제한·방역통제관리를 보다 정밀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
- (중점물자 운송) 비대면 물류운송 장려, 중점물자 수송차량 통행증 제도·중점지역 화물 운송물류 원활화 연합체계 구축 가속화 등을 통해 민생·생산 관련 중점물자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중소기업 지원) 소규모 납세자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중소·영세 물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

- 물류망·공급망 혼란으로 중국 제조업 경기지수(구매자관리지수: PMI) 3개월 위축 국면
 - 국유 대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통계국 PMI, 민간 중소기업 위주로 조사하는 차이신 PMI 모두 3월부터 석달째 기준선(50) 하회
 -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및 도시봉쇄 조치로 생산 차질, 공급망 불안정, 물류난 등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4월 PMI는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

<2022년 3~4월 중국 제조업 경기지수 위축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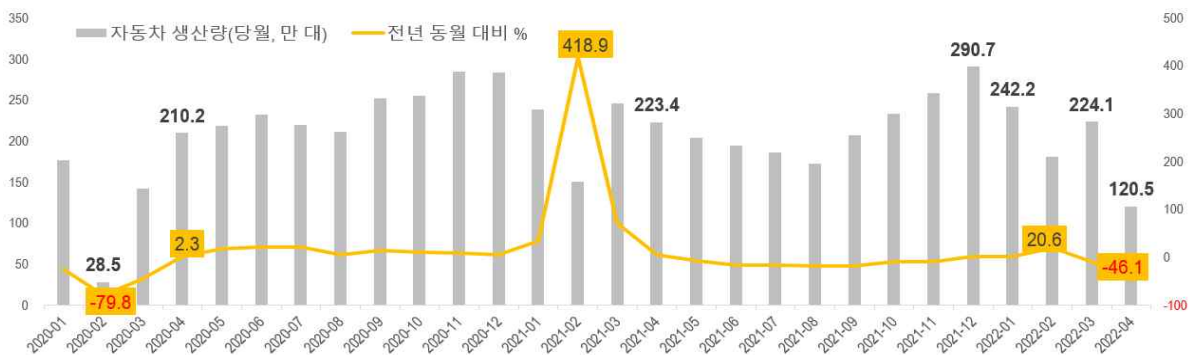


자료: 國家統計局, 財新網

※ [사례] 도시봉쇄로 중국 자동차 공급망 위기

- 4월 중국 자동차 생산량 120.5만 대, 전년 동월 대비 46.1% 급감
- 전국 자동차 산업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와 지린 봉쇄된 것이 주요인
- * 상하이는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자동차 부품 업체는 2만개가 넘으며, 2021년 283.3만 대 자동차를 생산해 중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2652.8만 대)의 10.7%를 차지
-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핑의 허사오핑 회장은 “상하이와 주변 지역 부품업체가 곧 생산을 재개하지 못하면 5월에는 중국 모든 자동차 제조공장이 생산을 멈출 것”이라고 경고(4월 14일)

<중국 자동차 (당월)생산량>



자료: CAAM

2. 주도권 경쟁과 자립형 공급망 구축

□ 미국의 對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국제협력망 구축

- 미국 주도의 전방위적 압박 국면을 타개하고자 중국은 메가FTA 구축과 개도국 간 협력 강화 등 두 트랙으로 기존 선진국 주도의 통상질서 변화 도모
 - 중국은 아세아-태평양 인근국과의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1년 9월 수준 높은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 2022년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통해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형성을 가속화하고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 백신 외교, 기후위기 공동 대응, WTO 개도국 지위 변경 이슈 등을 통해 중국은 개도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기존 선진국 주도의 통상질서를 타파하는 데 총력
 -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바이오·의료, 에너지 전환 등 관련 투자·용자를 강화하고 백신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최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응하기 위해 남태평양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섬

< 중국의 개도국 협력 강화 조치 전망 >

구분	세부 내용
백신 불평등 해소	- 개도국과 코백스 등 국제기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 일대일로 연계해 개도국에 관련 기술 지원 및 바이오·의료 투자 강화
기후위기 대응	-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용자 적극 추진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피해자임’ 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기후위기 주도에 맞서 ‘기후변화 공동의 차별적 책임 이행’ 추진
新 통상질서 구축	- 개도국과의 자유무역협력 강화 -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무역 장벽 해소 및 WTO 개도국 지위 변경’ 등 요구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 등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영향력 한층 확대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립형 경제구도 구축 및 미래 성장 동력 발굴

-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전 방위적인 대중 압박,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20년부터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펼치기 시작함
 - 2020년 5월 시진핑 주석은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 전략 최초 제시, 그 후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이자 중장기적 정책 노선으로 자리매김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과거 수출·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내수중심의 성장 및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성장으로 경제성장 모델의 대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안보와 주권 문제로 확산되면서 중국기업과 정부는 기술 자립,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상황
 - 미국은 화웨이 및 자회사를 거래제한 리스트(Entity List)으로 지정하고, 동 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키는 등 중국의 기술굴기를 저지
 -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와 M&A를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
 - 중국은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에 대비하고 있음

< 미중 마찰 중 중국 기업·정부의 대응 >

구분		세부 내용
기업	기술 자립	- 2020년 8월 화웨이는 기술의 탈(脫)미국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난니완 계획(南泥湾计划)’ 과 ‘탑산 계획(塔山计划)’ 을 추진을 발표
정부	기술 자립	- 2기 반도체 산업 발전 기금(2041.5억 위안, 1기는 1387억 위안)을 조성하여 반도체 산업 육성을 도모
	지재권 보호	- 2021년 6월 1일부 新 ‘특허법(專利法)’ 시행
	미국 정부의 중국기업 제재 조치 맞대응	- 2020.9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제정·발표, 같은 해 11월 1일부 시행 * 중국 국가, 기업,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의 대중 무역·투자활동 제한·금지 - 2020.10월 ‘수출통제법’ 반포, 같은 해 12.1일부 시행 * 중국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및 '수출금지대상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함
기술 수출 관리 강화		- '수출제한 기술목록' 수정 * AI 등 선진기술 수출시 허가받도록 규정
사이버 안보 강화		- 2019.1.1.일부 '사이버 보안법' 시행 * 개인정보, 핵심 정보 인프라, 해외 전송 인증 심사 등 관련 법률 통합 - 2020.6.1.일부 '사이버 안전 심사방법' 시행 *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국가안보 위험 여부 사전 심사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제도		- 2021.1.19.일부 '외국인투자 안전 심사방법' 시행

자료: 정부 발표, 언론보도 종합

- 핵심 원자재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공급선 다변화, 산업고도화 적극 추진

※ [사례] 中 철강업계, 철광석 자급률 향상을 위해 '기석(基石)계획' 가동

- '기석계획' 은 글로벌 공급사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철광석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년~15년 내 중국 철광석 공급구조를 개혁하는 철강업 자립화 전략임
- 2022년 1월 중국철강공업협회가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보호부 등 관련 부처에 '계획' 을 보고, 신청했으며 최근 추진 허가를 받은 상황
- 중국내 철광석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외 공급선 다변화*에 주력할 방침
- * 호주·브라질 이외의 자원 확보, 예컨대 2022.5월 중국철강그룹 카메룬 정부와 철광석 광산 개발 MOU 체결 등
- 현지 전문가들은 지난해 당국의 조강 감산 조치도 철광석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 전략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

- 세계의 對中의존도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 집중도를 높여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권을 강화
 -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은 물론, 마그네슘 등 전 세계 공급량에서 중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산업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으로서 중국은 국유 기업 통폐합을 통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해 중국 전체 중희토 생산량의 68%(경희토 33%, 전체 희토류 생산의 36%)를 해당 기업에 집중시켰음
 - ** 중국 마그네슘 금속 생산량 연간 90만 톤, 전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 80~90% 수준임. 2021년 중국 주요 생산기지의 생산가동 중단이 세계 마그네슘 공급 대란으로 이어진 바 있음

3.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난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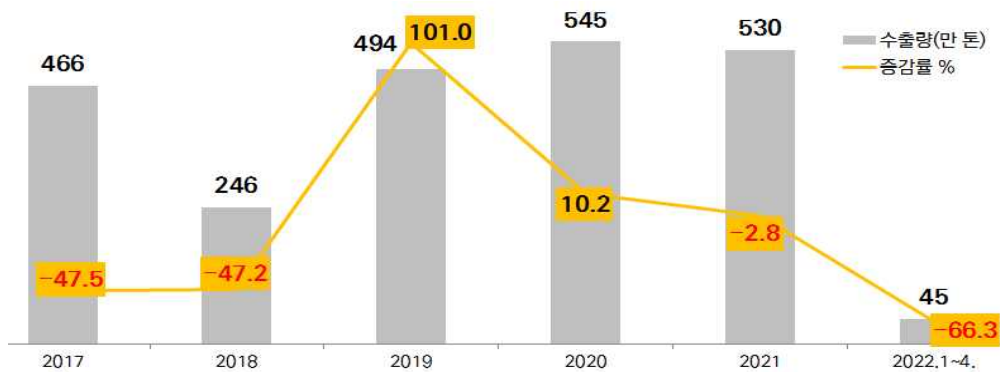
□ 중국내 안정적 공급 우선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세, 중국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겹착재로 중국은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 수출세 인상 등 정책·조치를 동원해 자국 내 안정적 공급을 확보
- 국내외 가격 격차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중국 내 공급부족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 [사례] 중국 비료 수출검역 의무화로 세계 요소 공급부족

- 별도의 검역,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총 29종 비료 품목 (HS 10단위 기준)은 2021.10.15.일부터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의 검역을 거쳐 통관단을 발급받아야 수출 가능
- 규제 강화를 통해 수출을 억제하고 중국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출제한 조치임
-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연간 5천만 톤)이자 수출국인 중국의 요소 수출 억제 조치로 세계 요소 공급부족 심화

< 중국 요소 수출량 추이 >



자료: Global Trade Atlas

□ 대중(對中) 압박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가속화

-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음
- * ‘수출통제법’(20.12.1일부 시행):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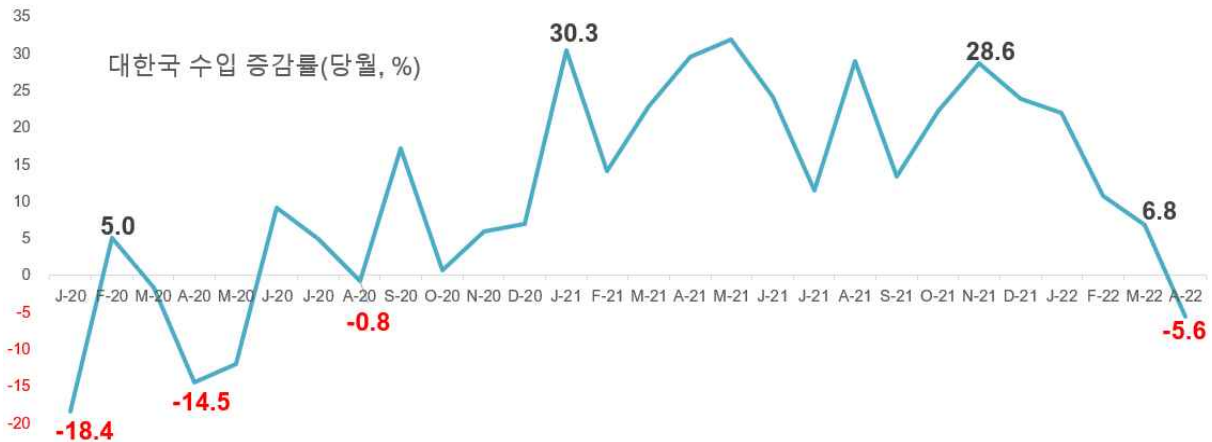
Ⅲ. 한중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대중(對中) 수출에 대한 영향

□ 코로나 봉쇄에 의한 생산 차질로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감소

- 2022년 4월 중국의 대한국 수입 증가율은 1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
 - 기저효과 약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2022년 들어 둔화세 시현
 - 그러나 3월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4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2022년 봄 코로나 봉쇄 및 이에 따른 물류망·공급망 혼란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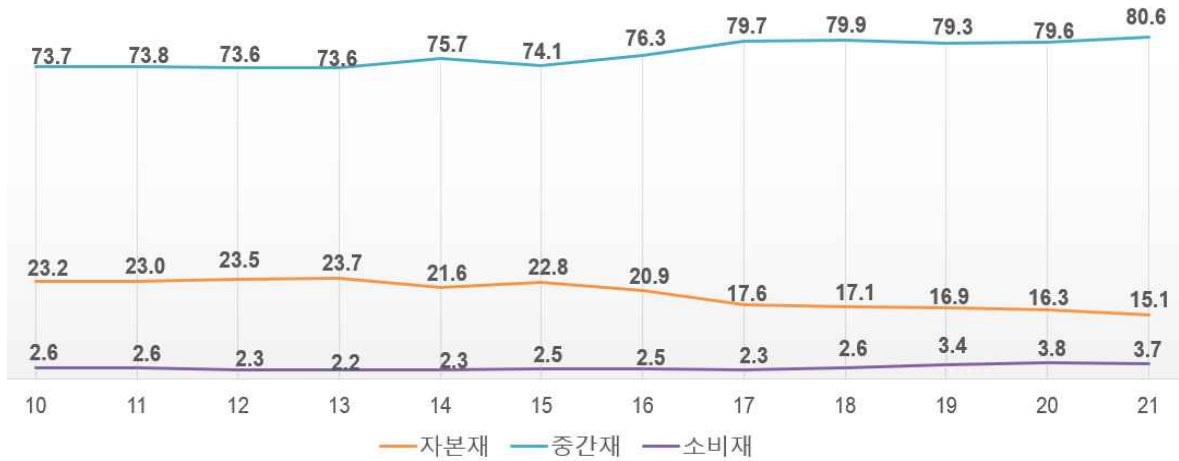
<對韓 수입 증가율, 20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자료: 海關總署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이 중간재 위주인 구조상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내 생산 차질은 한국산 제품 수입 감소로 이어짐
 -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생산과정에 필요한 중간재의 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2021년에는 80.6%로 더욱 높아졌음
 -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된 상하이 인근 장쑤성, 저장성 등 지역은 반도체,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의 우리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돼 있어 봉쇄조치는 한중 공급망에 큰 충격을 안긴 것으로 풀이됨

<중국 대 한국 수입의 가공 단계별 구성(대분류, %)>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를 수출입 제품의 가공단계별 분류 기준표인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에 따라 KOTRA 계산

- 4월 중국 기계전자, 전자설비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로 전환
 - 3월 수출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전자설비, 기계설비와 석유화학은 10%p이상의 감소폭을 보였으며 자동차 수출증가율은 공급망 위기로 반토막 남
 - 기계전자와 전자설비는 중국 전체 수출에서 1, 2위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며 한중 협력이 가장 긴밀한 분야로 중국의 수출 부진은 대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 감소로 연결됨

<2022.4월 중국 품목별 수출 증가율 하락폭>

(SITC 2단위)	'21년 수출액 (억 달러)	전체 수출 에서의 비중	'22년 월별 증감율			증가율 감소폭 (3월-4월)
			1~2월	3월	4월	
농수산물	1059	6%	20%	19%	19%	0%p
방역물자	1655	10%	11%	20%	0%	△20%p
섬유의류	2461	14%	11%	16%	10%	△6%p
가구/완구	1693	10%	3%	9%	6%	△4%p
전자설비	2450	14%	△1%	4%	△6%	△11%p
자동차	345	2%	104%	55%	9%	△46%p
선박	217	1%	△2%	△3%	△31%	△28%p
기계전자	5025	29%	14%	12%	△2%	△14%p
철강/유색금속	1020	6%	40%	19%	10%	△9%p
석유화학	1107	6%	15%	18%	7%	△11%p
에너지	324	2%	9%	2%	0%	△2%p

자료: wind

- 실제로 2022년 4월 주요 대한민국 수입품목의 수입 증가율은 크게 둔화
 - 중국 對韓 수입에서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집적회로(HS 8542)의 수입 증가율은 3월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2022.4월 5%대로 위축
 - 2위 수입품목인 환식탄화수소(HS 2902) 수입은 3월까지 60% 이상의 안정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 마이너스로 전환
 - 기계전자와 전자설비 생산에 필요한 부품(HS 8473, 컴퓨터 및 유사한 기계 부품)의 대한 수입도 급격하게 둔화하며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임

<對韓 수입 15대 품목 증감률>

순 위	HS 코드	품목	對韓 수입 에서의 비중%	4월 증감률%	3월 증감률%	1~3월 증감률%
전체 대한 수입			100.0	△5.6	6.8	13.0
1	8542	집적회로	42.2	5.7	17.6	21.9
2	2902	환식탄화수소	3.6	△10.9	67.7	74.0
3	8524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3.5	-	-	-
4	8529	무선기기 부품	2.6	22.2	28.6	28.0
5	8471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2.6	50.3	95.7	76.8
6	8486	반도체 제조기기	2.5	△37.7	△33.9	△20.2
7	2842	무기산염/과산화산염	2.0	240.1	130.4	106.4
8	8473	컴퓨터 및 유사한 기계 부품	2.0	△14.2	51.6	46.2
9	3901	에틸렌 중합체	1.8	16.5	9.2	42.0
10	8517	통신기기 및 부품	1.7	△19.7	△21.4	△17.9
11	2710	정제유 (휘발유/나프타 항공유 등)	1.4	6.9	35.7	64.1
12	3304	화장품	1.3	△44.4	△38.8	△31.7
13	2901	비환식 탄화수소	1.2	△2.8	△11.6	20.4
14	8479	기타 기계류	1.1	△19.8	△35.5	△14.0
15	9001	광섬유/광학기기/ 콘택트렌즈 등	1.1	1.8	△1.6	7.8

주: 3위 품목 평판디스플레이 모듈(HS 8524)은 HS 코드가 2022년 신설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한편, 코로나 악재에도 무선기기 부품,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이차전지 소재인 무기산염/과산화산염 등 중간재는 수입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이차전지 소재인 무기산염/과산화산염은 4월에도 세 자릿수 고성장세

□ 대중(對中) 수출 주력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

- 최근 5년간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세
 - 중국의 대한국 수입 10대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간(2017~2021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대한국 수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1위 품목인 집적회로의 5년간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감소폭은 5%p, 주요 석유화학제품인 환식탄화수소의 감소폭은 7.3%p에 달함
 -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1.9%p 감소

<對韓 수입 10대 품목의 수입시장점유율 변화>

순위	HS	품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2017 점유율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9.9%	9.7%	8.4%	8.4%	8.0%	△1.9%p
1	8542	집적회로	25.3%	26.3%	20.7%	19.5%	20.3%	△5.0%p
2	8517	통신기기 및 부품	12.6%	8.5%	9.3%	9.5%	11.5%	△1.1%p
3	9013	LCD 패널	27.1%	29.9%	29.4%	26.1%	23.3%	△3.8%p
4	2902	환식탄화수소	41.9%	34.9%	33.7%	31.4%	34.6%	△7.3%p
5	8486	반도체 제조기기	19.0%	21.3%	20.2%	18.9%	14.1%	△4.8%p
6	8529	무선기기 부품	26.2%	16.5%	19.3%	20.4%	29.1%	3.0%p
7	8471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8.0%	9.2%	7.7%	9.2%	11.3%	3.3%p
8	8473	컴퓨터 및 유사한 기계용 부품	16.9%	19.5%	21.6%	22.0%	17.9%	1.0%p
9	2707	벤젠 등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	21.0%	40.2%	49.5%	45.9%	42.7%	21.7%p
10	3304	화장품	26.4%	26.6%	23.0%	19.0%	19.2%	△7.2%p

자료: Global Trade Atlas

- 중국 반도체, 전자부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된 주요인은 급격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인 것으로 분석됨

-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를 피하고 코로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 및 다변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소비형 전자기기, 전자제품 부문에서 중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미들·업스트림 부문으로 상향 이동하면서 아세안 등 지역과의 공급망이 강화되는 양상

<코로나 이후 우리기업의 탈중국 동향>

기업명	업종	동향
삼성SDI	배터리팩	▶ 우시공장(SWBS)(2021년말), 창춘공장(SCPB)(2021년초) 철수
삼성중공업	선박 블록	▶ Ningbo공장 폐쇄(2021년), 산둥 룡청공장으로 생산기지 일원화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 쑤저우 LCD 생산라인 중국 TCL에 매각(2021년) ▶ LCD편광판 사업 중국 Shanshan에 매각(2020년)
LG전자	전자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쿤산생산법인(LGEKS) 청산(2020년), 베트남 법인으로 일원화 ▶ 주방용 히터 부품, 텐진법인(LGETL) 청산(2020년) ▶ 가전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한국에서 생산
LG화학	화학	▶ 국내 유턴 신청, 2023년말까지 서산에 플라스틱바이오 공장 신설 계획
현대자동차	자동차	▶ 베이징 1공장 매각(2021년)
SK	타워/ 렌터카	▶ 베이징 SK타워 매각(2021년) ▶ 중국 SK오토서비스 지분 100% 매각(2021년)
성림첨단산업	희토류 영구자석	▶ 한국공장 건설중, 한국공장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중국 생산라인 축소 예정

자료: 언론 보도 종합

- 중국의 중저위 중간재 자급화, 가공무역 억제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의 경쟁력은 하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2021년 중국 중간재 수입이 2017년 대비 50.3% 증가하는 가운데 對 한국 중간재 수입은 21.7%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동 기간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2.9%p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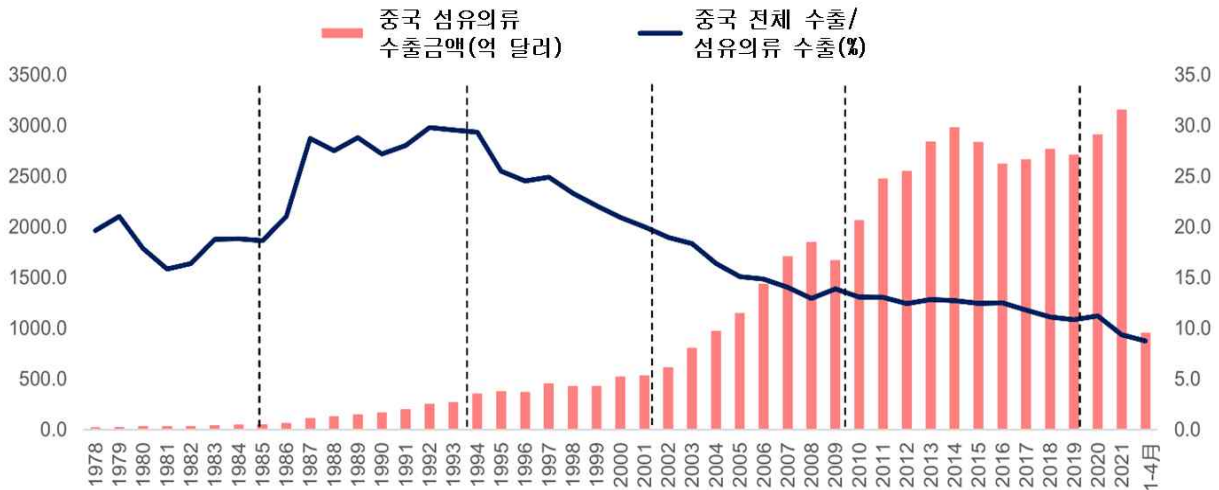
2. GVC 재편 추세

□ 코로나 사태로 잠시 주춤했으나 저부가가치 산업의 이전은 꾸준히 진행 중

-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10년대 들어 노동집약형 산업의 탈(脫)중국이 시작됨
 -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품목인 섬유·의류의 중국 수출 규모는 2014년 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전반 수출에서의 비중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까지 감소
 - 그러나 2020년 동남아 등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로 수출 주문이 다시 중국으로 몰리며 2021년 중국의 섬유·의류 수출금액은 7년 만에 2014년의 최고치를 경신함
 - 2022년 동남아 지역의 생산 회복에 따라 중국 수출에서 섬유·의류의 수출 비중은 빠르게 축소하고 있음

* 중국 전체 수출에서 섬유·의류 비중 : 2021년 9.4% → 2022.1~4월 8.4%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 증가>



자료: 海關總署, CHINA SECURITIES

- 중국이 2020년 초 코로나 조기 진압에 성공하면서 세계 수출시장에서 입지 강화
 -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중국의 전 세계 수출에서의 비중 13.4%
 - 코로나19 첫 발발로 2020년 초 11.4%로 추락했다가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힘입어 2020년 상반기 17%까지 가파른 상승세
 - 해외, 특히 중국 대체할 생산기지로 급부상 중인 동남아와 인도의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15% 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 상승>



자료: CEIC, INDUSTRIAL SECURITIES

□ 미중 대립 장기화·전면화로 GVC 재편 가속화

- 2018년 시작된 미중 통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탈중국)·다변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
 - 안정적인 대미 수출 및 해외진출에 주효한 글로벌밸류체인(GVC) 구축 위해 중국기업들까지 동남아 공장 설립 등 생산기지 다변화 행렬에 합류
 - 외자기업의 탈(脫)중국 현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추세로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청산 또는 지분 매각, 동남아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등 사례가 있어왔음
- * 외자기업 탈중국 현상의 주요인 : 인건비 상승·美中 무역 분쟁·중국 기업의 기술력 성장에 따른 중국내 경쟁 격화·중국정부의 각종 규제 및 자국기업 보호 등

< 코로나 이전 기업들의 탈중국 동향 >

국가/지역	기업명	업종	동향
중국	자장하이리더 (浙江海利得)	합성수지	▶ 中 최대 합성수지 기업으로 '18년 10월 베트남에 첫 해외공장 건설
	TCL	액정 TV	▶ 액정 TV대미 수출물량 멕시코 공장 증산키로 * 멕시코 공장 '17년 200만 대 → '18년 300~400만 대
	고어텍 (Goertek)	전기전자	▶ '19년부터 Air Pods를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
대만	Pegatron	아이폰 부품	▶ '19년 5월, 인도네시아 공장 신설(투자규모 10억 달러)

	Foxconn	전자기기 OEM	▶ 생산라인의 30% 이상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 계획 ▶ 일부 Ipad, Macbook 조립라인 베트남으로 이전, 생산지역 다각화
	TSMC	반도체	▶ 일본에 반도체 생산 공장 신설, '24년까지 미국에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5개 증설 예정
	Quanta Computer	컴퓨터	▶ 일부 생산 대만으로 이전
일본	니혼덴산	자동차부품 가전부품	▶ 중국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키로
	파나소닉	카 스테레오	▶ 카 스테레오 생산기지, 태국이나 멕시코로 대체
	요코오 (Yokowo)	자동차용 안테나	▶ '18년 미국향 수출 생산량 베트남으로 이전
	후나이 전자	액정TV	▶ 대미 수출용 액정TV(미국의 25% 추가관세 부과) 중국 공장을 멕시코와 태국으로 이전 * 멕시코 공장 : 65인치 대형 액정 TV 생산, * 태국 공장: 중국 공장 2개 생산라인 이전
	TOSHIBA	전자	▶ '21년 중국 내 첫 생산 공장인 다롄 공장 폐쇄
	Canon	카메라	▶ '21년 주하이 공장 철수, 베트남으로 이전
	브리지스톤	타이어	▶ '21.12월 후저우 공장 폐쇄, 글로벌 생산망 구조조정
미국	LOVESAC	가구	▶ 중국이 전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60%로 하향조정
	iRobot	가전	▶ 로봇청소기 Roomba 생산을 말레이시아로 이전
	Yeti	에어컨 박스	▶ 소프트 에어컨 생산, 필리핀 등 타 지역으로 이전
	Cummins	디젤 엔진	▶ 디젤 엔진 생산 일부를 인도 등 기타 지역으로 이전
	Crocs	신발	▶ 미국향 제품의 중국 내 생산량 2/3 이상 감소
	tapestry	가방	▶ 중국 내 생산량 5% 감소, 베트남 생산 증가
	Hasbro	완구	▶ 베트남, 인도, 멕시코, 미국 등 지역으로 생산 이전
	Gopro	카메라	▶ '19년 멕시코로 공장 이전
	Starley Black & Dexter	공구	▶ '20년 선전공장 폐쇄
한국	Alphabet	정보통신	▶ 핸드폰 생산 베트남으로 이전 ▶ 스마트제품 태국에서 생산 예정 ▶ 클라우드 메인보드, Nest 제품 생산 타이베이와 말레이시아로 이전
	삼성SDI	배터리팩	▶ 우시공장(SWBS)('21년말), 창춘공장(SCPB)('21년초) 철수
	삼성중공업	선박블록	▶ Ningbo공장 폐쇄('21년), 산둥 룡청공장으로 생산기지 일원화
	삼성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 쑤저우 LCD 생산라인 중국 TCL에 매각('21년) ▶ LCD편광판 사업 중국 Shanshan에 매각('20년)

LG전자	전자	▶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 쿤산생산법인(LGEKS) 청산('20년), 베트남 법인으로 일원화 ▶ 주방용 히터 부품, 텐진법인(LGETL) 청산('20년) ▶ 가전제품,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한국에서 생산
LG화학	화학	▶ 국내 유턴 신청, '23년말까지 서산에 플라스틱바이오 공장 신설 계획
현대자동차	자동차	▶ 베이징 1공장 매각('21년)
SK	타워/ 렌터카	▶ 베이징 SK타워 매각('21년) ▶ 중국 SK오토서비스 지분 100% 매각('21년)
성림첨단 산업	희토류 영구자석	▶ 한국공장 건설중, 한국공장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 중국 생산라인 축소 예정

자료: 언론보도 종합

-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섬유/의류·가구·기계설비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아세안(예: 베트남)의 대체효과가 선명하게 나타남
 - 미국의 플라스틱 재료, 섬유, 기계/전기, 전자설비, 가구, 의류 등 품목 수입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반면, 베트남산은 꾸준히 점유율을 확대
 - * 중국산 품목별 점유율 감소폭('21-'17, %p): 플라스틱 재료 △5.2, 섬유 △5.7, 기계/전기 △7.3, 전자설비 △7.4, 가구 △13.3, 의류 △6.8
 - 베트남산 품목별 점유율 증가폭('21-'17, %p): 플라스틱 재료 2.0, 섬유 1.6, 기계/전기 2.6, 전자설비 4.4, 가구 10.4, 의류 1.4
 - 2018년 하반기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며 저부가가치 산업의 다운 스트림 부문 이전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임

<중국·베트남 품목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추이(%)>

품목 분류 (SITC 2단위)	중국					베트남				
	2017	2018	2019	2020	2021	2017	2018	2019	2020	2021
플라스틱 재료	38.07	38.84	35.50	35.14	32.91	1.52	1.46	2.22	2.96	3.52
섬유	31.14	32.80	27.07	26.99	25.47	1.37	1.35	2.13	2.30	2.92
기계/전기	34.61	33.48	27.22	28.64	27.34	1.04	0.99	1.62	2.88	3.68
전자설비	38.18	38.24	32.58	31.05	30.74	3.14	2.86	5.73	7.14	7.58
가구	49.53	50.37	40.91	35.84	36.25	9.65	9.75	14.51	20.00	20.03
의류	37.08	36.45	33.62	39.56	30.28	12.12	12.32	13.43	13.64	13.55

자료: CEIC, INDUSTRIAL SECURITIES

□ 中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기업 脫중국 본격화

-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봉쇄·항구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탈(脫)중국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봉쇄 정책 영향으로 물류 차질이 발생해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고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
- 2022.4월 주중 외국상회에서 자국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업 대부분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동남아 등 중국의 대체 투자처를 모색하겠다고 밝힘
 - (EU 상공회의소, 4.21~27일, 372개 회원사 대상) 응답 기업의 30%가 중국에 대한 투자 이전할 계획이라고 답함
 - * 투자 이전 계획의 사유로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정책이 77%로 압도적 비중 차지
 - * 이는 지난 10년간 진행한 동일한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공급망 불류 차질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
 - (미국상공회의소, 4.29~5.5, 121개 회원사 대상)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내 투자를 이미 감축했거나 연기할 것이라 답변
 - * 응답기업의 59%는 봉쇄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답변
- 현지 증권사(TF SECURITIES)가 4월 말 봉쇄 지역 소재 기업(창장삼각주 지역 로컬·외자 456개사)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도체, 금속/신소재, 화공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기지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
 - 특히 한중 교역 1위 품목인 반도체 산업에서 40%의 기업이 생산기지 다변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창장삼각주 이외의 중국 기타 지역이든 동남아 이전이든 중국 핵심 첨단산업기지인 창장삼각주 이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역내가치사슬(RVC) 뿐만 아니라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상하이의 발전설비, 자동차, 에틸렌, 집적회로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10% 이상 차지
 - 봉쇄기간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자재 및 부품 공급난'이 꼽힐 만큼 제로코로나 정책의 공급망에 큰 충격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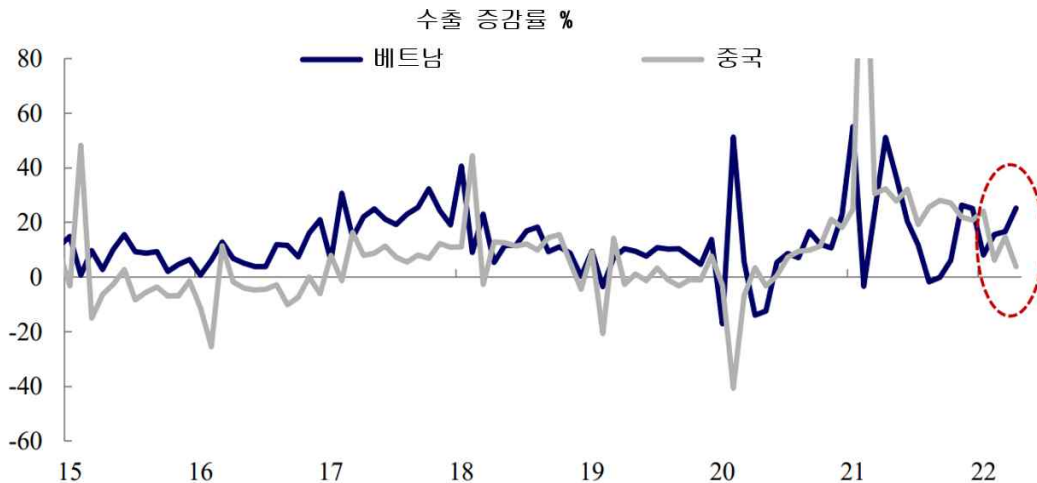
<산업별 탈(脫) 창장삼각주 계획>



자료: TF SECURITIES

- 실제로 상하이 및 인근지역이 봉쇄되었던 2022년 4월 중국의 수출 주문량이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올해 4월 기준 베트남이 수출이 25%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3.9%로 크게 위축됨
- 2022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되면서 세계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중국의 물류망·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경우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가 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2022년 들어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데 반해 베트남 수출 증가세>



자료: CEIC, INDUSTRIAL SECURITIES

3.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형성

- 코로나 이전부터 중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은 아세안과, 전자제품·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한·일과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가치사슬을 구축
 - (고부가가치 산업: 전자제품·자동차) 중국이 한·일·대만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 가공 → 동남아로 수출해 가공·조립 → 완성품을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 (저부가가치 산업: 섬유·의류) 한·중·일 등 국가가 동남아에 일반 부품소재를 수출 → 동남아에서 가공·조립 → 완성품을 수출
 - 중국은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로 한중일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산업망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 중국의 대한국, 대일본 수입구조는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 및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임. 중국은 RCEP 발효로 한·중·일 3국이 하나의 FTA 체제 아래에 있게 되면서 3국 간 경제협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중국 주요 산업망의 주요국/지역에 대한 의존도>

산업	아세안	자원 부국	EU	한·일·중·대만	중남미	미국
전자제품	19.6%	6.1%	6%	27.7%	0.7%	3.3%
자동차	5.2%	1.7%	39.3%	32.3%	2.8%	8.6%
섬유·의류	36.2%	14.3%	12.7%	10.4%	8.5%	4.3%

산업	아세안	자원 부국	EU	한·일·중·대만	중남미	미국
전자제품	12.4%	7.3%	14.9%	11%	6%	11.5%
자동차	12.4%	20.5%	15.6%	10.4%	8.6%	18%
섬유·의류	12.9%	17.4%	15%	13.1%	5%	18.7%

* 주: 산업망에는 최종상품의 수출입 금액 제외

자료: 海關總署, INDUSTRIAL SECURITIES

□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수출경쟁 심화

- 한편 중국의 기술 자립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지역) 간 수출품목 구성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
 - 한국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일본, 대만, 중국 순
 - 이는 글로벌시장에서 한중 제품 간 경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

< 2021년 국가간 수출구조 비교분석(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

국가/지역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중국	-	0.725	0.685	0.714	0.696	0.628	0.622	0.547	0.717	0.669
한국	0.725	-	0.856	0.808	0.712	0.681	0.611	0.555	0.618	0.666
일본	0.685	0.856	-	0.794	0.668	0.667	0.546	0.521	0.546	0.621
대만	0.714	0.808	0.794	-	0.708	0.666	0.598	0.573	0.647	0.600
태국	0.696	0.712	0.668	0.708	-	0.762	0.724	0.657	0.758	0.663
말레이시아	0.628	0.681	0.667	0.666	0.762	-	0.702	0.636	0.686	0.618
인도네시아	0.622	0.611	0.546	0.598	0.724	0.702	-	0.629	0.723	0.656
필리핀	0.547	0.555	0.521	0.573	0.657	0.636	0.629	-	0.640	0.511
베트남	0.717	0.618	0.546	0.647	0.758	0.686	0.723	0.640	-	0.663
인도	0.669	0.666	0.621	0.600	0.663	0.618	0.656	0.511	0.663	-

주: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두 변수의 실제 값 대신 두 변수의 순위를 사용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자료: Global Trade Atlas, JETRO

- 무역특화지수(TSI)¹⁾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중고위기술 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의 한중 무역은 우리나라의 '상대적 경쟁우위'에서 '경합'으로 변화
 - 저위기술 산업은 2011년 '상대적 경쟁열위'에서 2021년 '절대적 경쟁열위'로 바뀌었으며 중저위기술 산업은 '경합' 상태를 유지했으나 무역특화지수(0.053 → -0.012)는 감소
 - * 중고위기술산업 무역특화지수 변화: 0.386(2011년) → 0.405(2015년) → 0.135(2021년)
 - * 첨단기술산업 무역특화지수 변화: 0.334(2011년) → 0.306(2015년) → 0.221(2021년)

1) 무역특화지수는 수출경쟁력을 알아보는 지수로 특정 업종의 순 수출액(수출액-수입액)을 그 나라의 총 교역액으로 나눠 산출함. 1에 가까울수록 수출 비중이 높다는 걸 뜻함

IV. 전망 및 시사점

□ 연말까지 '공급망 안정'에 방점을 둔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예상

- 20차 당대회(2022년 가을)를 앞두고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되 공급망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밀한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주석은 상하이 일상 정상화 이후(2022.6월)에도 '제로코로나 정책 확고히 수행해야 한다'며 기존 방역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힘
 - 중국 경제중심지인 상하이가 두 달간 봉쇄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내부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범화·정밀화에 초점 맞춰 각 지방정부의 물류통제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 현지 기업들은 대응방안을 마련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음
 - 2020년 코로나19 첫 발발로 인한 충격과 비교했을 때, 2년 후인 이번 봉쇄로 인한 각종 경가지표 둔화 폭이 감소했음
 - 특히 재고와 생산 부문은 한 자릿수 감소 폭을 기록했는데 기업들이 충분한 재고 확보를 통해 안정적 생산을 유지했음을 시사
 - 2022.4월 코로나 봉쇄 기간 충격이 가장 컸던 부분은 도로 운송과 배송으로 봉쇄로 화물 운송이 막히면서 전반적인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이번 봉쇄를 계기로 기업들은 물류 적체 등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연쇄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급망 충격 2020.2월보다 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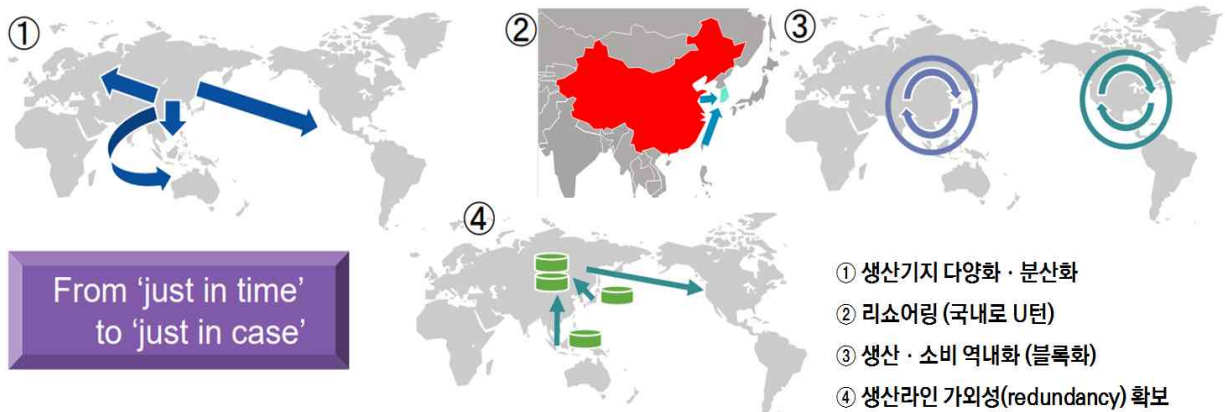
구분	지표	2020.2월 감소폭	2022.4월 감소폭
화물운송	배송시간 PMI	△17.8	△9.3
	중국화물운송생산지수(CTSI)	△17.1	△7.9
	중국물류업경기지수(LPI)	△23.7	△4.9
	도로 화물 운송량	△40.5	△14.3
	수로 화물 운송량	△22.2	1.5
창고보관	완성품 재고 PMI	△0.1	△1.4
	원자재 재고 PMI	△13.2	△1.6
	중국창고보관지수	△12.1	△4.8
생산	산업생산 전기사용량	△12.9	△1.2
	생산 PMI	△23.5	△5.1
	산업증가치	△25.9	△2.9

자료: Wind, Topsperity Securities

□ 미중 중심의 경제블록화 현상 가속화

- 미중 주도권 경쟁 심화, GVC 붕괴 및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
 - 그간 기업들은 생산기지 분산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등으로 대처해옴
 - 향후 코로나 장기화로 GVC의 탄력성(resilience), 독립성(autonomy) 확보가 과제로 부상

< GVC 재편 및 미중 중심의 블록화 가속 >



자료: 日 미즈호종합연구소

□ 대중국 의존도 관련 분석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중국의 다양한 공급망 이슈로 탈중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對中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중 공급망 안정을 보장해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한국은 중국과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이 연결돼 있어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음
 - *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대중 수입의존도(IMF 세계통계)는 14.3%로, 한·미·일 중에서는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順,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順
 -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주요 품목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중국지역 외 생산을 확대해야 함(China+1 전략)
 -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선 다변화 및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 탈중국 또는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여부는 기업의 중국에 대한 생산·판매 의존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정,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중국 공급망과의 긴밀성에 따라 산업망·공급망 재배치 필요>



자료: Harvard Business Review, INDUSTRIAL SECURITIES

Reference (주요 참고자료)

[국문자료]

KOTRA. 2020. 『코로나19 이후 대중 수출 변화와 시사점: 제품 용도별·품목별 수출 실적 분석』. KOTRA
KITA. 2021.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KITA
KITA. 2022.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KITA

[중문자료]

中信建投证券. 2022. 「劳动密集型行业的转移与启示」. 中信建投证券
興業证券. 2022. 「再议疫后全球供应链重构与转移」. 興業证券
国泰君安证券. 2022. 「常态化防疫与有何影响」. 国泰君安证券
德邦证券. 2022. 「当前供应链冲击和恢复的情况如何去何从」. 德邦证券
天风证券. 2022. 「天风问答系列:疫情后的供应链」. 天风证券
光大证券. 2022. 「从印太经济框架,看美国的遏华新思路」. 光大证券

작 성 자

- 베이징 무역관 윤보라
 김성애
- 아시아중아팀 윤기섭

중국 공급망 이슈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Global Market Report 22-018

발행일	2022년 7월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베이징무역관(86-10-6410-6162)

• ISBN: 979-11-402-0343-7 (95320)



청렴·**학**·세상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첫째,**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